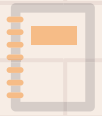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개관 10주년 기념

평생학습 인생토크 콘테스트 스토리북 꿈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발간사

우리는 왜 배우는 걸까요?

우리는 왜 성인이 되어서도, 그리고 은퇴 후에도 배우고 또 배우는 걸까요?

아마도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리고 더 잘 살기 위해, 한번 사는 나의 인생을 더 멋지게 꾸며보고 싶어서 배울 겁니다.

꿈이 있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학습을 할 겁니다. 이루고 싶은 게 많을 테니까요.

그런데 학습을 하다 보면, 꿈이 생기고,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꿈은 우리 삶의 의미고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등대이니까요.

2021년은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이 문을 연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 동안 함께 배우고, 함께 느끼고, 함께 꿈을 꾸면서, 함께 삶을 설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시대의 문을 열고 나아가야 합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오셨고, 그 삶 속에서 배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서로 펼쳐놓고 자랑하고, 나누고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름 하여 '평생학습 인생토크 콘테스트'였지요.

많은 분이 응모해주셨고 또 이 스토리북을 엮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스토리 잘 보존하고, 잘 나누고, 잘 전파하겠습니다.

이것이 민들레 꽃씨가 되어 여기저기서 멋진 평생학습의 꽃이 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영호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관장

CONTENTS



1부 · 평생학습인생토크콘테스트 발자취

- 이 스토리북이 나오기까지
 - 안내장 4
 - 카드뉴스 5
 - 스피치 특강 사진 6
 - 콘테스트 본행사 사진 7
 - 평생학습 인생토크 기사 8
 - 평생학습 인생토크 유튜브 10



2부 · 평생학습인생토크콘테스트 수상작

- 마음으로 함께하는 강사를 꿈꾸며 / 김효연 13
- 못 배운 설움 / 이순덕 17
- 어렵고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리... 희망의 씨앗이 되어 / 박세은 20
- 퇴직 10년 교육 봉사로 얻은 삶의 깨달음 / 전근배 27
- 내 인생을 바꾼 포크댄스 / 이영관 32
- 꿈을 꾸는 IQ 89 / 임성규 36



3부 · 평생학습인생토크콘테스트 응모글 모음

- “멋진 조경 전문가”의 길로 평생학습 / 이상성 43
- “내 인생의 수레바퀴” / 정명희 46
-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된 아프리카 해외봉사 / 정일국 51
- 인생 후반부의 좋은 놀이터 / 김순의 55
- 취약성을 드러내는 용기-연결의 결정적 단계 / 김지혜 58

• 내 인생을 화양연화로 이끈 뭐라도학교 / 엄성희	64
• 인생이모작을 평생학습관에서 짓자! / 우성재	68
• 누구나 기타향기 / 안수희	72
• 나는 왜 쓰는가 / 유미희	75
• 소확행을 꿈꾸며 / 이정래	78
• 배움을 통한 노년의 도전 / 송금례	82
• 옛 추억 그리워 / 노해남	84
• 배우고 익히며 사랑하며 / 허정희	86
• 내 인생의 전환점 / 최혜영	88
• 배움, 이음, 나눔 / 박경희	90
• 나를 만나는 시간 / 박정숙	92
• '아름이 길이 되는 곳에 우리는 서 있을 것이다.' / 신연정	94
•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꿔주는 수원시평생학습관! / 정미영	97
• 16살의 변화, 즐겁게 최선을 다 하는 인생 / 이부영	99
• 불꽃훈 나혜석으로 다시 태어나다. / 이순옥	101
• 인생콘테스트 / 최근자	102



4부 • 심사위원 참여후기

• '평생학습 인생토크'에서 배우다 / 손선희	105
• Viva La Vida (아름다운 인생이여 만세!) / 김은영	107
• 나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 평생학습 인생토크 / 이진희	108
• 미래를 그려나가는 커다란 울림 / 박미숙	109

1부

평생학습 인생토크 콘테스트 발자취



인생토크 콘테스트 스토리북이 나오기까지

- 2021년 8월 어느 날, 수원시 직원과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 직원 그리고 평생학습관련 시민 단체 대표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제15회 수원시 평생학습 축제와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 개관 10주년 행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그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인생토크 콘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함.
- 이 프로그램은 학습관 평생교육팀에서 운영하기로 하여 부랴부랴 세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함. 홍보기간이 비록 짧지만 최대한 홍보를 하여 '나의 삶을 바꾼 살아있는 배움' 이야기를 모으기로 함.
-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접수기간 중 32건이 접수됨.
- 시민들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서류 심사를 하여 6건을 발표자로 선정함.
- 서류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경선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고사하는 분들이 계셨음.
- 6명의 발표자를 대상으로 10월 20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발표에 대한 교육(스피치 특강)을 실시함.
- 학습관 개관 10주년 행사 겸 수원시 평생학습 축제는 10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되었는데 그 중 첫째날인 22일 학습관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인당 10분씩 발표행사를 가짐. 이 발표는 유튜브 TV로 생중계가 됨.
- 발표에 대해서 현장 심사위원(60%)과 시청자 온라인 투표(40%)를 종합하여 대상과 우수상을 가려 수원시장상을 수여함.
- 발표가 끝난 후, 심사위원들이 다시 모여 발표집 발간에 대해 의논하고 편집방향을 설정하여 이 스토리 북이 발간됨.

안내장



혹시, 한 권의 책을 읽고 삶을 바꿔나간 적이 있었나요?
강의를 듣고, 새로운 삶을 다짐한 순간은 있었나요?
누군가 만나고, 과거와는 다른 삶을 그려보진 않았나요?
때때로 자신의 경험 속에서 얻은 깨달음이 새로운 변화로 이어질 때도 있었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배워 나갑니다.
배움을 통해 당신이 실천한 새로운 삶을, 그 귀중한 이야기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행사 개요

- 행 사** 제15회 수원시 ON 텍스트 평생학습축제 with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10주년 기념 행사
- 참여 부문** <평생학습 인생토크 콘테스트>
- 주 제** 나의 삶을 바꾼 살아있는 배움
- 지원 자격** ▶ 수원시민 또는 수원시 내 재직자 또는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강좌를 1회 이상 수강한 학습자
- 심사 기준**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소속 심사단 심사 60% + 현장 공감도 40%
↳ 학습활동의 적절성, 다양하고 지속적인 실천노력, 사회적 기여와 귀감성
- 혜택·시상** ▶ 최종 발표자와 우수 지원자의 이야기를 담은 사례집 발간
▶ 최종 발표 결과에 따른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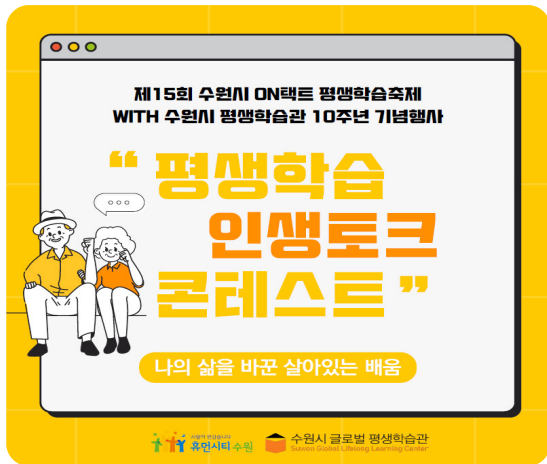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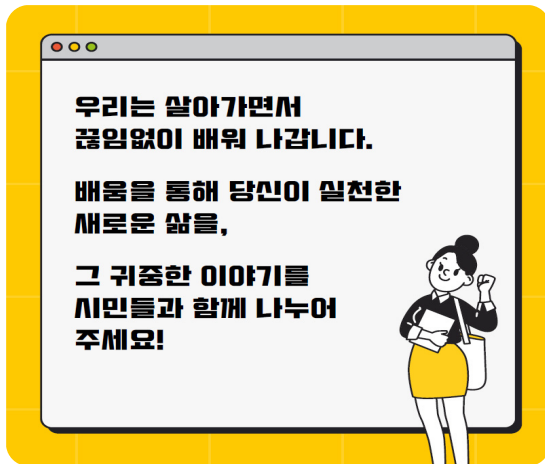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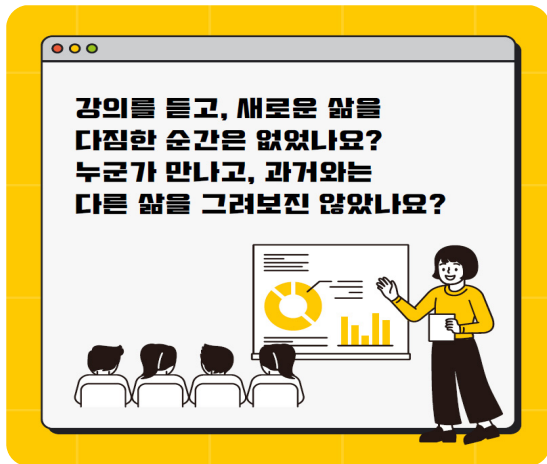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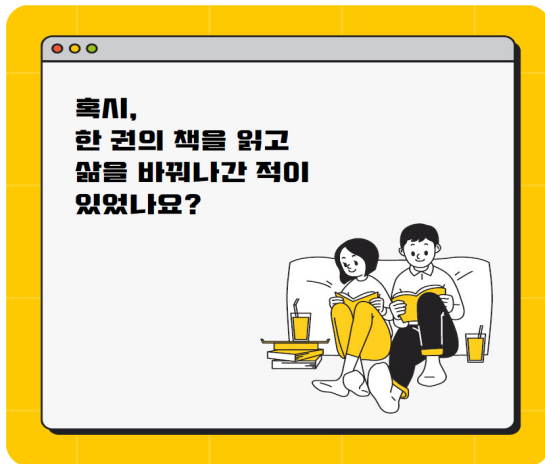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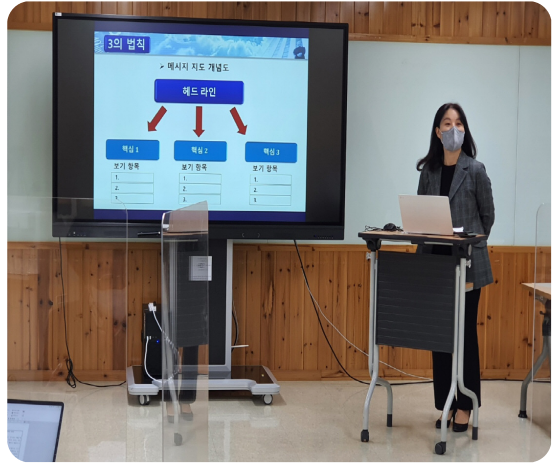
- 지원 방법** ▶ 구글폼 제출
▶ 학습관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지원서 다운로드(양식변경 X)
→ 이메일 접수 hopeful@learning.suwon.go.kr
- 서류 접수** 9/27(월)~10/12일(화) 17시 도착분까지
- 서류 발표** 10/18(월) 17시 ▶ 총 6명 선발
- 선발 혜택** 10/20(수) 19~21시 ▶ '효과적인 발표를 위한 특강'(대면) 무료 수강
- 경 연** 10/22(금) 14~16시 ▶ 서류통과자는 학습관에서 유튜브로 참여
▶ 1인당 발표 10분+질의응답 5분
- 발표·시상** 10/22(금) 경연이 끝나고 심사 후 진행 예정
- 주 최** 수원시
- 주관 문의**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 031-248-9700 (9~18시, 공휴일 제외)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스피치 특강 사진 2021년 10월 20일



콘테스트 본행사 사진 2021년 10월 22일



평생학습 인생토크 기사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나의 삶을 바꾼..배움’ 인생토크 콘테스트 성료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배움은 인생을 바꾸고, 삶을 깨닫게 해줍니다.”

배움이 희망의 씨앗이 되고 인생을 바꾼 ‘진짜 삶’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지난 22일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관장 조영호)이 진행한 평생학습 인생토크 콘테스트 <나의 삶을 바꾼 살아있는 배움>에 서다. 이번 행사는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의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2021 제15회 수원시 온택트 평생학습축제 기간에 맞춰서 함께 진행됐다.

학습관은 이번 평생학습 인생토크 콘테스트를 위해 지난 9월 수원시민과 수원시 재직자,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수강 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배움을 통해 실천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공모했다.

이어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근배씨의 <퇴직 10년 교육 봉사로 얻은 삶의 깨달음>, 이순덕씨의 <못 배운 설움>, 박세은씨의 <어렵고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리... 희망의 씨앗이 되어!>, 이영관씨의 <내 인생을 바꾼 포크댄스>, 임성규씨의 <꿈을 꾸는 IQ 89>, 김효연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강사를 꿈꾸며!> 등 총 6인의 이야기가 선정됐다. 이들은 본 경연인 인생토크 콘테스트에서 감동 스토리를 전달하고자 사전에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스피치 전문가 김동기 교수의 ‘효과적인 발표를 위한 특강’을 들은 후 발표를 했다.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대강당에 발표자와 심사위원이 모여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현장 참가자 없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참여로 시민들이 발표자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수상자는 심사위원단 5인의 현장심사 60%,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한 시민들의 공감 투표 40%를 합산해 결정됐다.

그 결과 대상의 영예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강사를 꿈꾸며!>를 발표한 김효연씨가 안았다. 김씨는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경제강사 양성과정을 거쳐 라온경제협동조합 활동과 어깨동무장애청소년 강좌 강사로 활동한 경험을 감동적으로 담아냈다는 평을 받았다. 대상 수상작 이 외에도 평생학습 인생토크 콘테스트에 제출된 공모글은 <나의 삶을 바꾼 살아있는 배움> 사례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조영호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은 “이번 평생학습 인생토크 콘테스트에서 수원시민들의 삶과 교육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가 큰 울림을 주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경험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이 지역 사회에서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1. 10. 25)

정자연 기자 jyy84@kyeonggi.com

출처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6023> 경기일보

평생학습 인생토크 유튜브



링크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sKXxZcuDhG0>

QR코드 바로 가기



2부

평생학습
인생토크
콘테스트
수상작



마음으로 함께하는 강사를 꿈꾸며

김효연 ●●●

저는 경제를 교육하는 강사입니다.

‘경제’ 영역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지만, 한편으로는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경제를 교육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제강사로 활동하는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특별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9년째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경제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달장애 1호 경제 강사로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제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냐고 저에게 자주 물어보십니다. 무언가 특별한 순간을 바탕으로 이 길을 걷게 된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제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야말로 평범한 순간들이 조금씩 모여 하나로 연결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첫 계기는 2012년 수원시평생학습관을 통해 재무관리사 양성과정 교육을 받고 경제강사 양성과정까지 수료한 이후 경제교육 경험을 쌓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로 자원봉사를 다니고 있을 때 받게 된 제안입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수원시평생학습관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제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해오셨고 “네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지적장애인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했던 경험이 있었고, 정말 필요한 교육이지만 전문강사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같이 배우면서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도전과 학습을 또 시작합니다.

학습자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했고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더 전문적인 배움이 필요했기에 사회복지대학원에 진학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많은 실습을 했고, 장애인경제교육 '어깨동무경제교실'은 저를 새로운 학습과정으로 이끌었고 또 성장시켰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어깨동무경제교실'이라는 장애청년 경제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코로나 19가 심각해지기 전까지 멈춤 없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학습관 내에서 함께 프로그램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담당 연구원분들과 라온경제교육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의 관심도 큰 몫을 했습니다.

전과는 다른 발상으로 새로운 교육 방법을 찾아야 했을 때 함께 고민해 주셨고, 혼자만의 가치관이나 생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혔을 때도 비장애인의 편향적인 시각이 아닌, 우리 삶 속의 작은 부분에 녹아들어 있는 실생활경제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주셨고 해결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깨동무경제교실은 말보다 마음으로, 글보다 체험으로 삶 속에서 터득해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고,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는 체험학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체험을 바탕으로 삶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경제의 면면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순간이 늘 아름답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많은 편견 어린 시선들에 맞서야 할 때도 있었고, 장애인 경제수업을 장애인복지관이 아닌 평생학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담당자를 만나 평생학습기관은 모든 연령대의 시민이 이용하는 곳이면서 장애, 비장애를 넘어 누구나 학습하는 곳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설명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진행했던 '예산 세워 레시피대로 요리하기' 수업을 마친 후에는 장애인 수업 이후에 교실에서 냄새나고 끈적인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함께 진행하는 선생님과 물티슈로 바닥 걸레질을 여러 번 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 가족들의 마음을 아주 조금 정말 조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문제로 학습자들을 잠깐 만나지 못했을 때도 저를 믿어주는 학습자들은 어김없이 저에게 연락을 하며 교육이 시작되기를 기다려주셨습니다. 어렵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생길 때도 ‘선생님에 대한 믿음’으로 느리지만 꾸준하게 따라와 주는 학습자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함께 그려갈 미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느린 학습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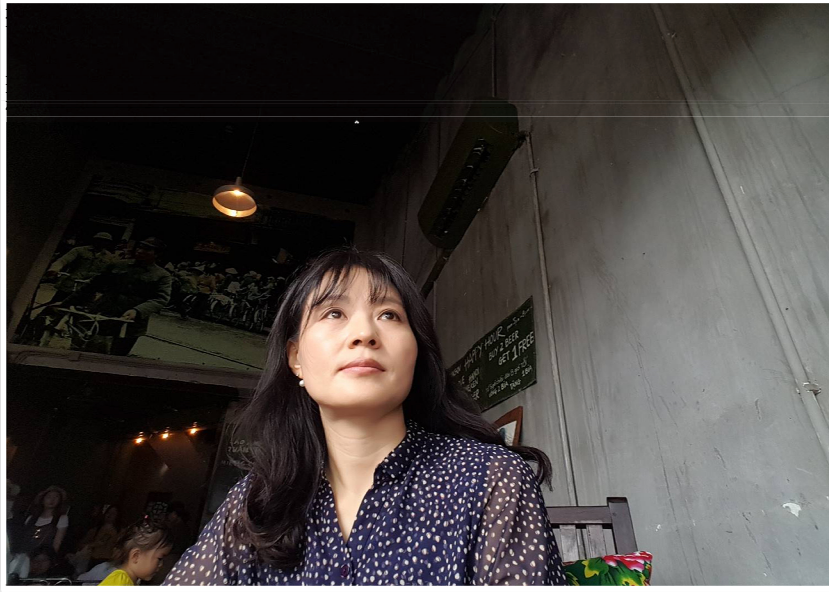
앞으로 가기 어려운 ‘느린 학습자’ 분들이고 학습한 이후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잊는 특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학습하면서 관계 속에서 경험으로 터득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말보다 마음으로 함께해야 마음을 열어주는 분들입니다

현재는 잠시 만나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온라인 학습으로 만나고 있고 11월이 되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소중한 시간 안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미래를 위해 함께 학습해 나갈 것입니다

매 순간 어깨동무경제는 조금씩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차근차근 걸음을 이어 가고 있고 우리 사회가 가진 편견이라는 사회적 장애를 조금씩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들이 신체적인, 그리고 발달적인 문제로 고민하기보다 사회적 시선 때문에 고민하는 세상이 과거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상자 김효연



어깨동무 경제교실 활동 사진

못 배운 설움

이 순덕 ●●●

내가 살면서 못 배워서 서러웠던 이야기를 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요~ 깊고 깊은 산골, 산토끼하고 발맞추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부모 복이 없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 남편을 따라 서울 살이를 시작했어요. 서울살이는 힘들드구만요.

어느 날 남편이 세탁소를 해 보자고 했습니다. 나는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세탁소를 하지 걱정을 했지만 기어이 남편이 세탁소를 시작했어요.

나한테 공부할 복은 안 주었어도 손재주는 주었는지 큰 옷은 작게 줄이고 작은 옷은 크게 늘려주었더니 근동에서 솜씨가 좋아 수선을 잘 한다고 소문이 나 손님이 제법 많았어요.

남편이 가게를 비워 나 혼자 가게 볼 때의 일입니다. 손님 옷을 다려서는 이름표를 써 붙였는데 남편이 돌아와 이름표를 보고 “이 사람 이름이 ‘김영새’ 아니고 ‘김영새’야”하면서 바꿔 붙였습니다. 나는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죠. 이 못 배운 서러움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내가 혼자 ‘가, 나, 다’를 배워도 아는 것이 없어 공부는 항상 제자리고 눈을 뜨고도 글을 몰라 봉사와 같았어요. 서울살이는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았는데 글을 모르니 나는 항상 뒷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앞줄에 서면 나보고 뭘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글도 못 쓰는데 가슴이 항상 쿵닥쿵닥 뛰었어요.

나는요, 항상 못 배운 것이 목에 가시로 남아있었거든요. 목에 가시는 빼버리면 될 걸 못 배운 것은 평생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혔어요.

몇 년 전에 남동생이 시골에 있는 땅이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 팔았다고 돈 500만 원을 주고 가면서 말합니다. “누나 이 돈은 살림에 보태지 말고 꼭 누나 필요한 것에 꼭 썼으면 좋겠어.” “딸이라는 이유로 공부도 안 가르치고 우리만 배워서 미안했어.” 내가 공부를 못 한 것은 동생들 잘못이 아니니 미안해 할 것 없다고 말을 했어요.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느덧 내 나이 70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노름꾼을 만나면 노름꾼이 되고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꾼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연치 않게 좋은 친구를 만나 내 손을 잡고 수원제일평생학교에 데려다 주었지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 줄도 모르는 나를 우리 국어 선생님이 도와주셨지요.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보라고 권유를 했는데 저는 지금 한글도 잘 모르는데 고시를 어떻게 보냐고 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 동안 본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인증서도 받았고요.

직장에 다니면서 3개월마다 재계약을 쓰는데 그 계약서 쓸 적마다 내 가슴은 두방망이질을 하였지요. 지금은 그 계약서도 잘 쓰고요, 은행 업무도 잘 볼 수 있고요,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도 잘 땁니다. 우리 집 주소도 잘 써요.

나는요 요즘에 ‘A’도 배워보고 ‘B’도 배우고 있어요. 글을 좀 배우고 나니 남한테 창피하지 않고 참 좋아요.

아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가 학교에 다닌다고 했다고 합니다. 내가 창피하게 그런 말을 왜 하냐고 했더니 창피하긴 뭐가 창피하냐고, 배움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친구들이 “야, 어머니 멋지다. 어머니한테 존경한다고 해.” 했다고 하네요.

나는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를 써서 음식을 못 하는 젊은이들에게 배우기 쉽고 만들기 쉬운 음식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나는요 나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으니 한 자 한 자 쌓아 올리면 텅 빈 내 머리 속에 차곡차곡 배움이 쌓이겠지. 열심히 하자 이순덕 파이팅!!”



수상자 이순덕



수원제일평생학교에서의 활동 사진

어렵고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리... 희망의 씨앗이 되어

박 세 은 ●●●

평생학습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먼저 수원시 평생학습관 개관 10주년을 축하드리며, 나의 '삶'을 바꾼 '살아있는 배움'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을 가리켜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하나요? AI시대, 4차산업혁명시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평생학습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에 앞서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내 최고의 교육기업에서 전문강사로 17년을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시작으로 독서, 학습, 체험, 진로 등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독서지도사, 자연생태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교육현장에 머물면서 부와 교육의 1번지라고 부르는 강남에서 10여년간 강의를 하였고, 작년부터는 전국을 순회하며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육의 진입이 빨라져 영유아 시기부터 뇌 교육을 시작으로 유치원의 누리교육, 초중고의 자기주도학습, 독서지도, 글로벌인재를 위한 외국어 교육까지 많은 교육을 하면서도 늘 저에게는 풀리지 않는 마음속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강사로 활동하면서도 지금의 AI시대, 4차산업혁명시대를 잘 헤쳐나가려면 예전 교육방법만으로 부족한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 교육과정도 교과서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학원을 전전하고 타인에 의해 떠밀리는 교육이 아닌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죽은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산지식,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을 찾아 다녔고, 그 답답함을 풀고자 찾아 다니던 중 만나게 된 ‘멘탈코칭’ 공부를 접하고 2017년 시작해서 2018년에는 아주대학교에서 ‘공부멘탈’ 방학특강을 시작으로 아이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공부멘탈 코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멘탈’ 프로그램이 많은 변화와 성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과 저 또한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를 보냈던 기간이 있었고, 그 시기에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공부멘탈’ 프로그램이 많은 변화와 성장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를 살아가도록 지탱시켜주었던, 또 누군가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공부멘탈프로그램’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어서 평생학습을 책임지고 있는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배움의 문턱을 낮춰 주었고, 수많은 지역활동가를 배출하고 그 결과 누구나 강사가 되고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저 또한 수강생으로, 강사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나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였나요? 그 과정에서도 딱히 거기에 맞는 답을 하지 못하셨어요.

학원을 보내고 문제집을 푸는 것만으로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인재상이 변했고, 입시제도도 변화했고 키워야 할 역량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유치원에서는 프로젝트 학습을 시작으로 학생 개인의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통합학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린 20~30년 전 학습방법을 20년 후를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공부방법을 찾아서 스스로 동기부여해야 합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공부가 내 인생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생각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있어 멘탈(마음가짐)이 중요한가? 머리가 중요한가? 몇 대 몇으로 중요한가? 대부분 멘탈(마음가짐)이 머리보다 두배 가까이 중요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럼 인생을 사는데 있어서 멘탈(마음가짐)이 중요한가? 머리가 중요한가? 몇 대 몇으로 중요한가? 그에 대한 답은 공부에서보다 인생을 사는데 있어서는 멘탈이 훨씬 중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공부에서 인생에서 멘탈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많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영어, 수학에는 시간과 돈과 노력을 어마 무시하게 들이지만 인생에서 공부에서 그렇게 중요한 멘탈을 위해서는 뚜렷한 노력을 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멘붕이다, 멘탈 나갔다, 멘탈이 흔들린다 다양한 얘기들을 합니다.

멘탈은 죽을 때까지 없어서도 안되고, 죽는 그 순간까지 멘탈력에 의해 삶을 마감할 것 같은데 그 누구도 우리에게 멘탈에 대한 교육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받으려 해도 교육비가 비싸고 서울에서 교육이 진행되기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도전할 기회조차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겨울방학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공부멘탈 방학캠프'를 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인생에서도 '멘탈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정작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는 배운 적이 없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멘탈 특강'은 공부를 잘하는 기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공부를 다스리는 방법을 익히고, 멘탈관리를 통해 나를 바로 세우고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학생들 스스로 주도적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핵심강점을 통해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긍정멘탈을 익혀 나가는 연습을 하였죠! 줌으로 세 시간 긴 시간이었지만 일방적으로 듣는 강의가 아닌 쌍방향 소통방식이었기에 그리고 서포트코치님이 함께 들어오셔서 대부분 1:3의 수업으로 진행되어 아이들은 즐거운 수업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가 정답을 알려주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수업! 그리고 한번 배우고 끝나는 교육, 되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수업이 아닌 집에 돌아가서도 고민하고 생각나게 하는 나의 삶과 연결되는 시간이었어요. 공부멘탈 방학특강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예전에 배웠던 공부와는 다르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아이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습니다.

공부하면 '지겹다. 힘들다. 짜증난다'가 생각나지 않나요? 그런데 이 과정에 들어온 학생들이 점점 공부는 내 삶의 일부이고 내 멘탈은 내가 결정하고 공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나의 인생을 생각하게 하니까 공부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공부를 왜 하냐고 물으면 대부분 몰라요, 그냥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아니면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안하면 혼나니까'가 아닌 10년, 20년 후의 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중학생 친구의 소감에서처럼 공부와 그 외에도 긍정적인 마인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나의 주변에 나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또 그 분들과 친구들에게 어떤 감사한 마음들이 있었는지, 앞으로 나의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까지 생각해보는 시간 등을 가졌습니다.

그 자원들을 바탕으로 나의 핵심 공부 습관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총 15시간의 멘탈코칭을 통해 자존감도 높아지고 아이들이 단점에 집중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질 못해 방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좋은 점들을 30개 이상 찾게 하니 결과가 기대와 달라도 끈기있게 도전하고 "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들을 찾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공부멘탈의 중요성을 더 실감했고, 많은 분들이 이 '공부멘탈'을 배워서 지역사회 청소년에게 자기주도적인 삶을 이끌도록 지도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3월 22일 청소년 코칭 지역활동가 양성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12주차 강의로 코칭의 이해를 시작으로 코치의 기본자세, 코치의 기본 신념,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10년, 20년 후 모습을 설계하고 강한 멘탈을 위한 질 높은 자기 대화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생의 축도 세우고 핵심강점도 찾고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서로 성장하는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며 성공하는 핵심습관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육했습니다.

그 결과 총 26명의 코치님들이 입과해서 20명이 수료하고 현재는 18명의 코치님들께서 「청소년마음코칭연구소」라는 동아리모임을 만들고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부모님들을 위한 부모멘탈코칭도 진행하다보니 주강사와 서포트코치들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현재 9월부터는 2기 청소년 코칭 지역활동가 양성과정을 시작해 총 20명의 코치님들이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정말 어떻게 올해가 갔는지 모르게 지나가고 있고, 만약 이 공부멘탈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평생학습관에서 이 기회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죽을똥 살똥 사느냐고...

저에게는 두번의 죽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22살 꽃다운 나이에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신분의 트럭에 치여 죽음의 경험을 해 보았고, 현재는 흔하지 않아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한 “후종인대골화증”이라는 인대 가운데 하나인 후종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지면서 목이나 어깨 부위를 압박하고, 그 결과 저는 늘 통증과 하나가 되어 생활을 합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왼쪽 얼굴부터 시작해서 어깨 팔, 다리까지 통증이 오는 이상한 병에 시달려야 하며, 굳어가는 부위도 고약해서 수술도 안되고, 병원을 찾아도 통증 주사 외에는 달리 치료 방법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하루를 즐겁고 신나게, 내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재능을 나누고 배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 주고 제가 많은이들에게 쓰임 받고 가는게 저의 소망이고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저는 일어서다가 허리가 삐끗하

며 정신을 잃었고 아~~ 나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경험을 또 한번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저는 더욱더 어렵고 힘든 분들, 소외되고 교육의 혜택조차 없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서 전국을 순회하며 열과 성을 다해 강의를 하며 또한 공부멘탈 코칭과 지역활동가 양성과정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통증이 갑자기 손님처럼 찾아올 때마다 저는 공부멘탈에서 늘 얘기했던 “실패는 없다, 오직 우리에게 배움과 성장이 있을 뿐이다”를 외치고, “딱, 좋아 왜냐하면”과 수많은 긍정적 이유들을 찾아보고, 우리가 멘탈 강화를 위한 하는 세가지 질문! “지금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지?” “내가 원하는게 뭐지?”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게 뭐야”하고 수백번 수천번 질문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현재 여러가지 다양한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미래는 지금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스톱스텝 멈추지 않고 느리더라도 한발짝 한발짝을 걸어가시며 “이또한 지나가리라”를 믿으면서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평생 학습이 왜 중요한지, 공부멘탈을 통해 청소년들과 학부모님의 내일을 준비하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과 함께 저 또한 최선을 다해 함께 익히고 또 배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자 박세은



공부멘탈 프로그램 강연 사진